

KIA 타이거즈 V10 기원 각계 격려 메시지

“가을의 전설 만들어 호남인에 희망과 긍지를”

“광주시민 응원·사랑으로 V10 반드시 해낼 것”

박광태 광주시장

광주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한결같은 사랑이 KIA 타이거즈의 10번째 우승을 이끌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KIA는 ‘한국시리즈 9회 우승과 4연패’라는 한국 프로야구사에 깨지기 힘든 신화 같은 기록을 남겼고, 지금 ‘V10’ 능선을 힘차게 오르고 있습니다.
KIA 타이거즈는 광주 시민들에게 희망



KIA 타이거즈의 선전을 145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과 용기를 심어준 메신저로서 언제나 시민의 사랑과 갈채를 한 몸에 받아 온 만큼 이번에도 광주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9회 우승 타이거즈 전남도민들의 희망이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KIA 타이거즈는 우리 전남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젊은이들이 낙망하지 않고 꿈을 갖는 나라엔 분명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얻는 길엔 KIA 타이거즈 호랑이들의 보이지 않는 패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혼이 있었습니다.
KIA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 9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전남도민들과 애환



V10의 영광과 행운이 선수와 도민, 그리고 팬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을 함께 해 왔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호남인 자존심 곧추세울 패거 꼭 이뤄주길”

김완주 전북도지사

올 한 해 보여준 막강한 선발진과 폭발력 있는 중심타선 등 투타 밸런스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낸 정규리그 1위의 영광은 타이거즈의 부활을 알리는 우렁찬 포효이자 호남인의 자존심을 곧추세운 패거였습니.
이제 정규리그 1위의 감격은 잠시 접고 ‘V10 달성’이라는 전인미답의 목표를 향해 가을야구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사상 첫 ‘서해안 시리즈’의 주인공은 KIA 타이거즈! 바로 당신입니다.

해야 할 때입니다. ‘V10 달성’은 호남인의 자존심은 물론 잠재된 호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전령사가 될 것입니다.

“KIA는 한국 야구·한국 경제 선도하는 자존심”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KIA 타이거즈의 활약이 광주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정규시즌에서 우승하는 동안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과 직원들의 사기가 상승하고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는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IA가 한국시리즈에서도 반드시 우승함으로써 이런 상승 분위기가 계속 됐으면 좋



같은 값이면 기아차를 구매하는 애정을 발휘했으면 한다.

겠다. 광주공장에서 만드는 쏘울도 잘 팔려서 광주 경제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지역민들도 타이거즈에 대한 응원의 한 방법으로

“타이거즈 포효 있어 광주·전남은 외롭지 않았다”

송기진 광주은행장

12년을 기다려 왔다. 이제 V10만 남았다. 호남경제의 프라이드! KJB 광주은행이 한국야구의 프라이드! KIA 타이거즈의 코리아 시리즈 우승을 지역민과 함께 열렬히 응원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이거즈의 포효가 있었기에 광주·전남은 외롭지 않았다. 광주은행이 지키고 있기에 광주·전남 경제는 든든



거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지역 경제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

하다. 광주·전남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
V10(코리안 시리즈 10승)으로 한국야구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갈 KIA 타이

“꼭 우승해서 광주 새 야구장 건설 활력됐으면”

주재현 한국화가

야구는 호남인에게 하나의 희망이다. 상대팀인 SK에도 호남 출신 선수들이 많아 이번 코리아시리즈는 일종의 ‘호남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1위 행진을 하며 슬럼프가 가득했던 2009년 호남인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했다. 또 다른 도전에 나서는 선수들 모두 호남인에게 희망을 심



어울 수 있는 멋진 경기를 펼쳐주기 바란다.
꼭 우승을 해서 많은 시민들과 야구팬들이 바라는 새로운 구장 건설도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한다. 다음에는 새 구장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KIA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어울 수 있는 멋진 경기를 펼쳐주기 바란다.

“호랑이 패기와 호남인의 강으로 천하무적 V10 확신”

한민관 개그맨

천하무적 일타일생, 개그맨 한민관입니다. 아시겠지만 광주 출신 혼놈이지요. 저도 요즘 천하무적에서 야구를 하며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무슨 일이든지 못해낼게 없다는 자신감도 갖게되었어요. 저같은 약골이 무슨 야구냐며 안쓰러워도 하시겠지만,
12년만의 KIA타이거즈의 KS 진출은 호



팅!!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라해~”

남인의 패기입니다. 꼭 승리합니다. V9, 호랑이의들의 패기와 호남인의 강이 있기에 기(氣)가 있지 않습니까. 기(氣)가 있기에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선수 여러분 파이팅!!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라해~”

“호랑이 특유의 응집력으로 ‘파이널 킹’ 돼 주길”

신지애 프로골프 선수

KIA 선수 여러분! V10을 향해 장쾌한 타구 날려주세요. 나는 그린에서 받은 기(氣) 야구장으로 날려보낼게요.
‘파이널 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나와 같이 KIA도 특유의 응집력을 살려 반드시 SK를 이기고 ‘파이널 킹’이 되주길 바래요.



롱기스트’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비록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은 못하지만 필드에서 호쾌한 샷으로 우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구단에 비해 KIA에 최희섭·김상현 선수 등 ‘야구의

“국민남매도 응원...이왕이면 4승으로 끝내주세요”

이용대 배드민턴 국가대표

KIA가 우승한다면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던 순간만큼이나 설레일 것 같아요. 꿈이 현실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힘찬 격려 보내드릴게요.
혼합복식 파트너 이효정 누나와 고향 화순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응원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어요. 경기 시간엔



으로 끝내줬으면 한데요.

혼편을 멈추고 TV보며 감동받고 함께 열민 응원할 겁니다. “타이거즈 짹짹! 짹짹!”
승부가 될까요? 마음 같아선 내리 4승



<KIA 구름슨>

기세 오른 호랑이 4연승으로 끝낸다



KIA, 오늘 인천서 SK와 KS 3차전 격돌
양팀 선발 구름슨-글로벌 필승카드 내세워
KIA 공·수·주 완벽 조화 ‘3승’ 자신감 충만

기세 오른 호랑이 4연승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다.
홈구장에서 2승을 쟁긴 KIA 타이거즈가 19일 적지 문학구장에서 SK 와이번스와 한국시리즈 3번째 대결을 벌인다. 1차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용병들의 마운드 맞대결이 벌어진다.
KIA 조범현 감독은 구름슨을 SK 김성근 감독은 글로벌버를 필승카드로 내세웠다. 일본 무대를 거친 구름슨은 올 시즌 3.24의 평균자책점으로 13승을 거뒀다. SK전에는 6번 등판해 2승2패 3.83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1.60의 방어율로 9승을 올린 글로벌버는 KIA와는 3차례 만났다. 2.08의 평균자책점으로 1세이브를 기록했지만 8과3분의2이닝만을 소화한 만큼 서로 전력을 탐색할 시간은 적었다.
앞선 두 차례 선발 대결은 KIA의 완승이었다. KIA 선발 로페즈와 윤석민이 각각 8이닝 3실점, 7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한국시리즈 승리투수 명단에 이

를 올렸다.
반면 SK 선발 카도쿠라와 송은범은 5회와 4와3분의 1이닝 만을 막는데 그쳤다.
한국시리즈 1·2차전은 체력, 집중력, 마운드, 기동력 등 모든 면에서 KIA의 승리로 끝났다.
3주간의 휴식기 동안 체력을 비축해 놓은 KIA는 ‘심상투’ 선발진의 활약속에 힘 빠진 SK 마운드를 압박하며 경기를 풀어나갔다.
문제가 됐던 경기감각은 집중력으로 극복했다. 21일 만의 경기였지만 KIA 선수들은 공·수에서 집중력을 보이며 차근차근 경기감각을 회복해 가는 모습이였다.
1차전 두 개의 실책이 나왔지만 마운드는 흔들림 없이 경기를 이어나가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2차전에 연달아 나온 호수비는 SK 공격의 흐름을 끊었다.
타선의 집중력도 KIA의 우위였다. 2차전 안타수는 5개와 10개로 SK가 앞섰다. 하지만 SK가 정상



<SK 글로벌버>

호의 솔로홈런으로 1점을 만드는데 그친 반면 팀플레이가 돋보인 KIA는 5개의 안타로 2점을 뽑으며 2-1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SK의 장점으로 꼽히던 기동력도 착실하게 한국시리즈를 준비해온 KIA 앞에서 무력화 됐다.
안방마님 김상현은 2차전 5회초, 원바운드 공을 잡아 발 빠른 나주환을 2루에서 잡아냈다. 1차전에서도 박재홍의 도루를 저지했던 김상현은 폭투로 홈을 파고들던 3루수자 정상호도 잡아내는 등 SK의 발을 묶었다.
KIA는 첫 경기에서 4·5번 최희섭과 김상현이 ‘테이블 세터’ 역할을 자처하면서 도루까지 기록하는 등 SK의 허를 찔렀다.
테이블 세터의 대결도 KIA의 완승이었다.
KIA 테이블세터로 호흡을 맞춘 이용규와 김원섭은 두 경기에서 0.500의 출루율을 기록하며 4차례 홈을 밟았다. SK의 테이블 세터 임무를 맡은 박재홍과 박재상은 출루율이 0.250에 머물며 득점에 실패했다.
KIA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꼽혔던 경험부족은 백전노장 이종범이 채웠다.
1차전 결승타의 주인공 이종범은 6타수 3안타 3타점의 신들린 활약을 펼치며 경험부족의 젊은 선수들을 이끌었다. 공·수·주 삼박자의 조화로 2승을 올린 KIA가 자신감을 앞세워 세 번째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